당내 리더십 회복…정권 퇴진·대여 투쟁 동력 강화

李 '위증교사 무죄' 의미·전망

향후 정치적 반등 모색 기회 얻어
대권가도 탄력…민생행보 다질 듯
사법리스크 여전 선거법 2심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정치적 반등을 모색할 기회를 얻게됐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흔들렸던 당내 분위기를 다 잡고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겨냥한 정권 퇴진과 대여투쟁 동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 인생 최대 위기였다.

이 대표가 사법부의 두번째 판단에서도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도덕성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당내 리더십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받아내며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위태로워 보였던 '11월 위기설'을 가라앉히며 대권 가도에 다시 탄력을 받게됐다.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를 내세우며 대여 투쟁의 동력을 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예정대로 시도한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 되더라도 이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와 대비하며 '야당 탄압·표적 사정'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또 내부 결속과 단일대오를 통해 당내 '친명 체제' 정비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선 중진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윤건희 검찰정권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독려했다.

제1야당의 대권주자로서 수권 능력과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 함께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당부했다.

이 경우 2027년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도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남은 재판 등으로 인해 사법리스크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번 무죄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면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됐지만, 상급심과 남은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 디아이지에어가스㈜ 등 2개 기업과 1조204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양산업단지개발㈜과는 60만5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포스코, 광양산단에 저탄소 철강생산 시설 구축

전남도, 철강 등 투자 유치
1조 투자 친환경 제철 확충
화순 이양 신규 산단 조성도

포스코가 광양 국가산단에 1조원을 투자해 저탄소 철강생산 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간 35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 디아이지에어가스㈜ 등 2개 기업과 총 1조204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양산업단지개발㈜과는 60만5000㎡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 오규석 디아이지에어가스 대표 등 3개 기업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구복규 화순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광양 국가산단에 1조원을 투자해 저탄소 철강생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탄소 철강생산 시설 구축으로 기존 고로 생산방식보다 연간 35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산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철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디아이지에어가스㈜는 여수국가산단에 2042억원을 투자해 산단 내 타사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공급받아 정제, 액화 등 과정을 거쳐 수소가스와 초고순도 액화이산화탄소(액화탄산)를 생산한다. 기존에는 주로 연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를 새로운 원료로 재탄생시켜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에 따라 이양산업단지개발은 10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화순 이양면에 신규 산단 개발에 나선다. 신규 산단에는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증가와 청년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될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개발은 전남 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주요 청년정책

구분	사업명	대상자	주요내용
일자리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미취업 청년	일경험 및 급여지원, 직무교육 등 (800명이상)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 (월50만원) 및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6개월이상 구직단념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참여수당(50만원~250만원) 지급 및 취업연계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누구나	구직단념 예방,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동명센터, 상무센터)
주거	청년월세한시지원	19~34세 무주택자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비용 지원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	무주택자	대출한도 1억원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2%지원
교육	광주형 청년갭이어지원	미취업 청년	해외 갭이어 프로그램 제공 (30명) 1인당 500만원이하 지원
	인공지능(AI)사관학교	미취업 청년	현장중심 AI 특화인재 양성 교육· 취업지원
	GCC(문화콘텐츠)사관학교	미취업 청년	문화콘텐츠 분야 (첨단실감,게임,웹툰,애니) 교육·취업·창업 지원
복지	광주청년센터	누구나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정장 대여, 자격증취득지원, 이력서 사진촬영, AI 모의면접), 마음건강상담 등
	청년13(일+삶)통장	저임금 근로청년	청년 월10만원씩 10개월 저축, 시 100만원지원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중소기업근로청년	중소기업 근로 청년 만기공제 1,000만원 지원 청년(2년간 500만원), 기업(200만원), 시(300만원)
	청년드림은행(재무상담소)	누구나	채무조정지원, 연체해소금(100만원) 지원
	군복무청년상해보험	군복무 청년	군복무 중 사망, 상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금지급
	청년자율공간운영	누구나	광주시에 위치한 청년센터 등 청년공간을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신청·활용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